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인명\*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

sun2000@seoulshinbo.co.kr

###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침체의 확산일로에 있다.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1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 정도는 이미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지 오래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이미 서울 시민들에 대한 1차 재화·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섰다. 그 규모만으로도 서울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지역기반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흐름을

\* 저자 학력, 경력 :

- 연세대 대학원, 서울대
- 前 제일은행, 동화은행 근무
- 現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무

이어주는 등 서울경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균형성장 여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넘어 서울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서울시 소상공인의 역할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

### 1. 서울시 소상공인의 현황 및 기능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이 업종 이외의 경우 5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은 대기업·중기업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형태이지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의 사업체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86.4%,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36.8%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서울시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비교 (2006년 기준)

구분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상공인	소계 (A+B)			
사업체수	701,104 (100.0)	668,859 (95.4)	606,074 (86.4)	30,352 (4.3)	699,211 (99.7)	1,893 (0.3)
종업원수	3,209,518 (100.0)	1,716,633 (53.5)	1,180,802 (36.8)	899,909 (28.0)	2,616,542 (81.5)	592,976 (18.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현황 (20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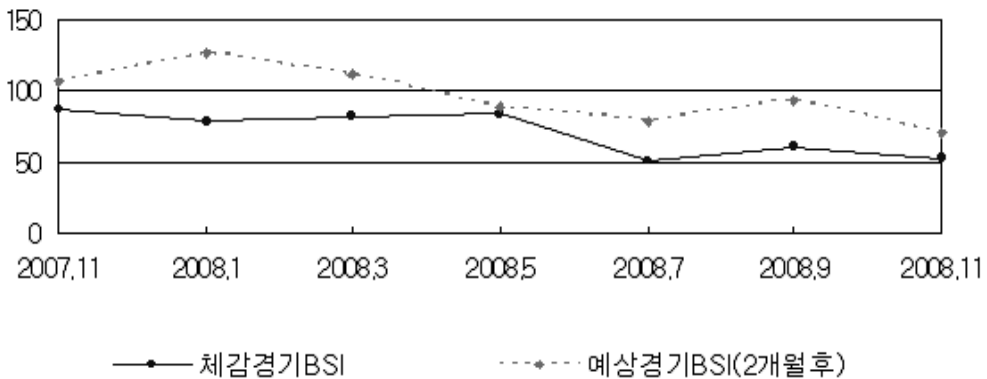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서울지역 산업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은 서울시 경제에 소상공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은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성이 매우 강하고 서울지역경제 뿌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느냐가 서

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가지는 발전 동력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의 대기업, 중견기업들도 대부분 초기에 소규모로 시작하였음을 상기하여 보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좁은 물론 미래 성장기반의 모태가 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의 활성화는 사회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중기업에 고용되지 못하는 미숙련·저학력 노동자나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생계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은 사회안전망의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경제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흐름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심대한 경영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2008년 11월 기준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전반에 대한 체감경기BSI(Business Survey Index)는 2007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그림1>). 체감경기BSI는 2003년 이후 100이하에서 머물고 있으며, 2개월 후의 경기를 예상하는 예상경기BSI도 2008년 초 일시적으로 100을 넘었으나 다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 :  $BSI = \frac{\text{호전에상업체수} - \text{악화에상업체수}}{\text{총응답업체수}} * 100 + 100$ ,  
 100은 보합, 100을 초과하면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08년 1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 및 2009년 1월 전망

[그림 1] 최근 1년 소상공인 체감·예상경기 BSI (2008.11월 기준)

이와 같은 경제침체에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 이외에도 원가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소상공인 과잉화로 인한 경쟁 격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축소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증가 등 여러 방면으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소상공인지원정책의 배경 및 타당성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정책은 1997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 5.31 대책을 통하여 컨설팅,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육성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설립되어 각각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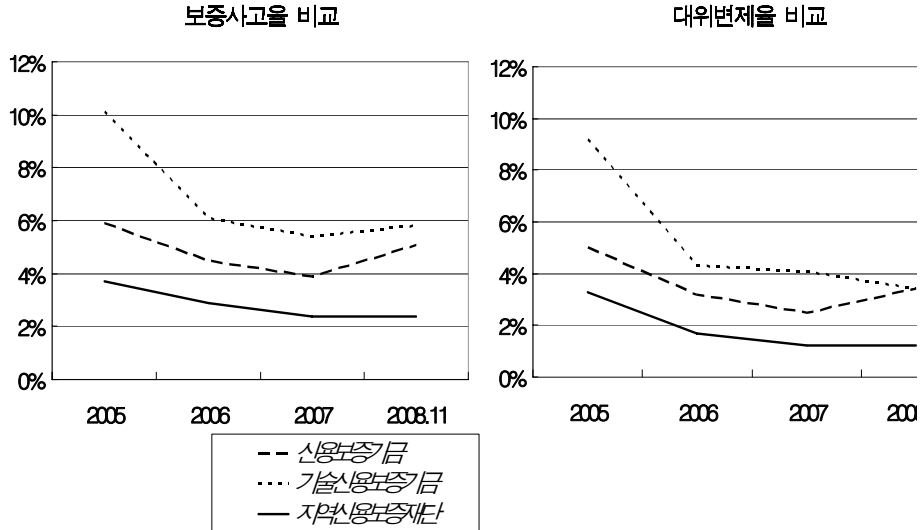
이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던 신용보증 지원의 대상이 지역신용보증 재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신용보증제도의 존재이유로 i) 낙후된 금융시장환경하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필요하다는 견해, ii)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실패를 보완해 주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는 견해가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은 소상공인의 균형성장과 제도금융의 소외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은행은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signal)의 부재 및 담보 부족을 이유로 소상공인대출을 기피하였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자기신용도를 쌓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는 이른바 신용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분석은 좀더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보증기관들의 보증잔액 대비 보증사고율<sup>1)</sup> 및 대위변제율<sup>2)</sup> 추이 비교를 통하여 상환능력을 검토함으로써

1) 보증사고 : 보증 받은 기업이 대출금원리금 연체,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보증약정을 위반한 경우 발생

2) 대위변제 : 기업이 보증사고발생 이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기업을 대신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 및 경쟁력 신장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대비 보증사과율·대위변제율 비교

<그림2> 를 보면,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과율 및 대위변제율이 중·소기업에 주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하여 상당히 낮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증지원 후 대출상환 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신용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은행들의 소상공인대출기피태도에 대한 반론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업무와 더불어, 서울시중 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여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변제

### Ⅲ.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증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 200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다. 설립 초창기에는 신용보증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2003년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으로부터 이관 받아 신용보증·정책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원스톱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업무를 수탁 받아 현재는 신용보증·자금지원·창업교육·상담·컨설팅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 신용보증 지원현황

신용보증제도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보증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후, 지방화·분권화 시대로의 이행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1996년부터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법상 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신용보증업무를 개시하였고, 2000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조합은 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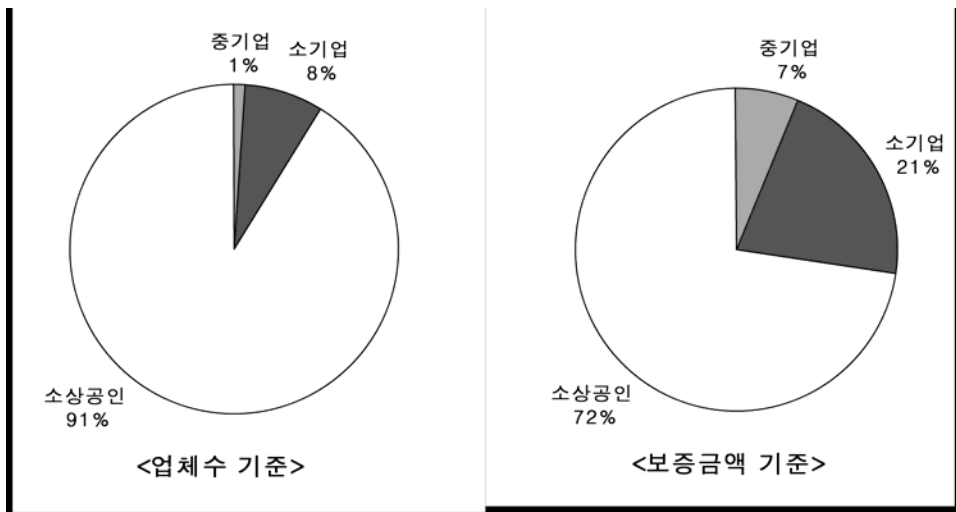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상술한 바와 같이 1999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현재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용보증공급을 하고 있다. 연도별 신용보증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연도별 신용보증 공급현황 (총지원규모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

(단위 : 개, 억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	합계
총보증공급	업체수	407	1,809	4,257	7,622	12,439	11,534	28,517	14,300	21,627	30,353	132,865
	금액	325	1,522	2,510	2,609	3,379	3,179	4,856	4,047	5,206	6,860	34,493
소상공인보증공급	업체수	229	1,127	2,845	6,209	10,971	10,163	27,043	13,132	20,256	29,016	120,991
	금액	115	507	935	1,583	2,565	2,351	4,143	3,044	4,074	5,706	25,023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한 총보증 지원규모는 업체수 기준 132,865개, 보증공급금액 기준 3조 4,493억원이다. 이 중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이 지원대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증잔액 기준으로도 2008.12.20 현재 82,004개의 업체가 보증을 받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대출이 거의 개인대출로 취급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소상공인기업대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도 대기업·중소기업처럼 경제주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서울신용보증재단 총보증지원대상 규모별 현황 (2008년 11월 기준)

## 2.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1965년부터 조성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크게 운전자금(경영안전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성된다. 운전자금은 사업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영자금을 대출시 장기저리의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책금리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과 은행금리에서 일정금리를 보전해 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이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은행으로 추천 통지한 기업에 대해 은행은 서울시에서 자금을 대하하여, 해당 자금으로 신청기업에 대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추천기업이 은행자금으로 대출받지만, 은행이자 중 일부(금액에 따라 1.5% ~ 2.5%)을 서울시 자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설자금은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정보화 목적의 신규설비 도입, 공장 및 사업장의 구입·건축시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은 현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조건을 나타낸 표이다(2008.12월 기준, 특별자금지원은 제외).

〈표 3〉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종류별 융자지원조건

구 분		상환방식	대출이율	한도금액
운전자금	경안자금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3(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4.5%(변동) 4.8(5.0)%(변동) 5.2%(변동)	5억원 이내
	은행협력자금	·1년거치3(4)년 균분상환	시중은행대출금리의 1.5~2.5% 이차차액 보전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년거치3(5)년 5(10)년 균분상환	5.0%(변동)	100억원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03년 4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연도별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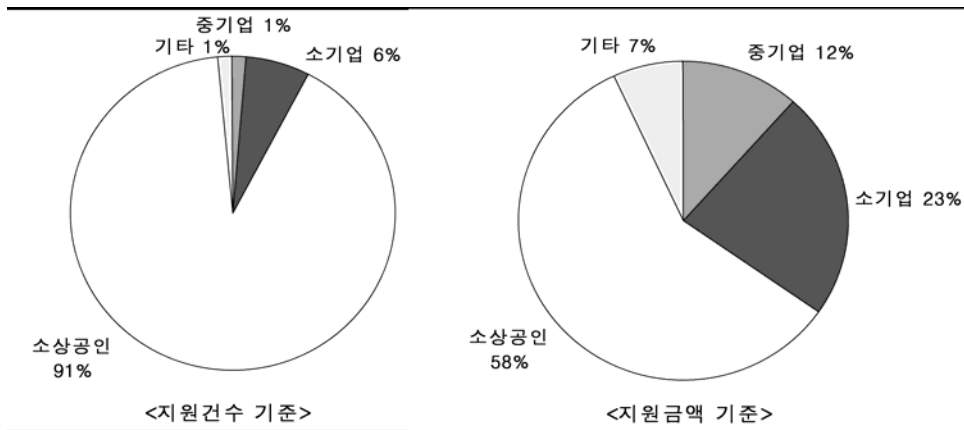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2.20	합 계
합 계	5,197	6,553	9,480	7,894	8,804	11,854	49,782
중소기업육성기금	3,084	3,553	6,510	4,720	5,783	5,806	29,456
경영안정자금	556	337	2,913	1,303	2,827	3,440	11,376
시 설 자 금	2,528	3,216	3,597	3,417	2,956	2,365	18,079
시중은행협력자금	2,113	3,000	2,970	3,174	3,021	6,048	20,326



과거에는 타 기관에서 별도의 용자 추천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금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용자 추천 후 실제 은행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실행율도 60%로 저조하였으나, 재단을 통한 동시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었고, 대출실행율도 90%대로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대부분 지원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을 동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과 동시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재단에서 지원되는 신용보증 중 약 90% 정도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시 지원되고 있으며(금액기준), 지금까지 자금 지원받은 기업의 규모별 분류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2008.12.20기준, 시설자금 제외). 이는 신용보증·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이 낮은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균형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규모별 현황 (2008.12.20 기준, 시설자금 제외)

###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기관이다. 1999년 설립, 2006년에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같은 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라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35명의 상담사 등이 7개의 센터에서 예비창업자나 영세한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제공, 창업교육, 정책자금 추천, 입자상권분석, 점포이전, 업종변경, 경영개선 등 사업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자금을 통한 금융지원은 물론 창업교육 등 다양한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을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단에서는 이러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재단 영업점과 센터와의 통합사무실(One-Roof)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현재 7개 서울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 5개 지역(강남, 강북, 영등포, 은평, 구로)이 재단과 센터가 같은 사무실내로 통합운영되어 소상공인들이 한 사무실에서 창업부터 자금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수탁 이후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상 담	컨설팅	사후관리	유관기관 자금추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2006	12,917	1,263	587	585	4,680 (84회)
2007	12,941	1,717	2,069	565	7,407 (88회)
2008.11월	19,070	2,815	3,835	244	8,219 (98회)
합 계	44,928	5,795	6,491	1,394	20,306 (270회)

컨 설 팅 : 경영지도및진단, 입자·상권분석, 업종전환재정업지원, 우수성공사례  
사후관리 : 기지원업체에 대한 방문지도 등

#### IV.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 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09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서울경제 활력 제고 및 성공창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계획들을 시행, 준비하고 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창업의 전(全)단계 지원체제를 구축,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 1. 자금 및 보증공급규모 대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1조4000억원 지원
- 신용보증 6,600억원 (20,700건) 공급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총 1,300억원 지원)

우선 재단은 2009년 자금 및 보증지원규모를 2008년 대비 대폭 확대한다. '전국소상공공인의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07)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 관련 애로사항으로 수요(매출)부족(40.4%)에 이어 자금 부족(11.9%)이 2순위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축소와 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환경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단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2009년도에는 1조4천억원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과 6,600억원(20,700건)의 보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보증 및 자금지원 외에도 특례보증을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 실시되었던 2005년 특례보증의 지원효과 분석(서울경제 2007.7)에 따르면 특례보증지원업체의 88.8%가 매출액 증가, 69.1%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그 지원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

성지원 특례보증(2008년 11월 실시)이 계속 진행된다. 총 지원규모는 1,3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기존의 업체당 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효과를 강화하였고 뉴스타트 특례보증에 이어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도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차보전금리는 기존의 2.5%에서 0.5%p 확대한 3%가 지원되며 보증료는 1%, 신용조사수수료는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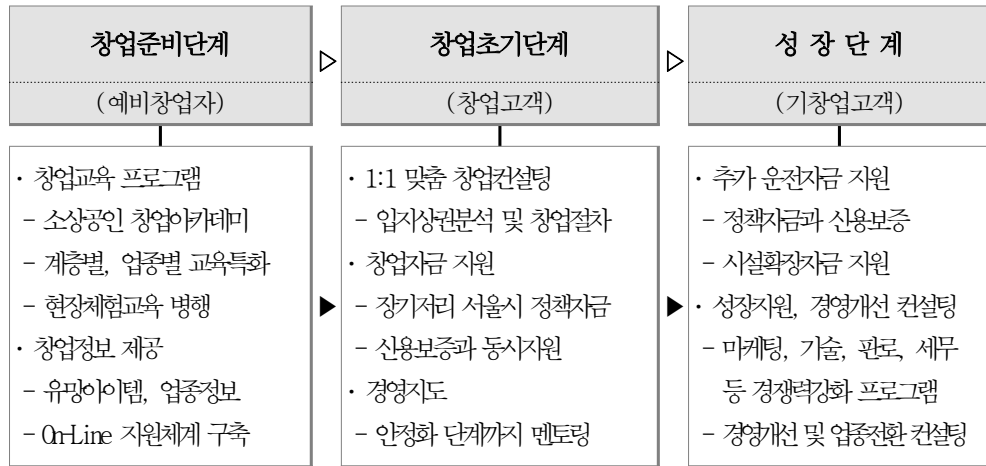
또한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도 8월부터 실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도 계속 실시된다. 보증한도를 기존 1/4 ~ 1/6에서 1/3 ~ 1/4 (소액심사의 경우 기존 한도의 30% 증액)로 확대하였고(최대한도 2억원), 보증료 인하 및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보증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이차보전금리는 기존의 1.5 ~ 2.5%에서 0.5%p 확대한 2.0 ~ 3.0%의 이차차액을 보전하며 이차지원기간도 종전의 4년에서 1년이 확대된 5년이다.

## 2. 일자리 창출 및 성공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서울시 '서울일자리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 창업교육, 창업자금, 신용보증, 컨설팅 등 Total 지원 시스템 강화
-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업체당 최대 8천만원, 총 800억원 지원)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 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창업지원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창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형의 소상공인 생태구조가 고착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창업준비단계부터 창업이후 성장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서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성공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는 보다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단계에 따른 여러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단 내에 ‘창업지원부’를 신설하여 창업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창업 준비자를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에서 연 100회 이상의 다양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상담시 다양한 업종정보, 유망아이템 등을 제공하여 창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창업박람회는 창업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5] 창업단계별 소상공인 지원체계

2009년에 서울시에서는 일자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서울일자리센터는 구직자에게 취업에 관한 상담, 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센터로써, 여러 일자리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창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단은 서울일자리센터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창업 초기단계에는 1:1 맞춤형창업컨설팅 및 창업 후 안정화단계까지 멘토링을 실시한다. 특히 여성창업멘토링을 확대하여 여성창업자들이 창업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특별보증및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에는 창업자금지원금액을 기존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장 임차자금 5천만원도 별도로 지원하여 창업시 자금지원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총 지원규모는 2008년 대비 320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이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자본기술창업, 1

인 지식기업 창업 지원 우대 등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어서도 추가 운전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단에서는 발간되는 경영정보지 ‘서울 크레딧’을 통하여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재단의 보증지원업체들로 구성된 ‘서울기업교류협의회’의 후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Micro Credit) 확대

- 서울 희망드림뱅크 특례보증 실시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총 30억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별자금 지원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는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이전에는 금융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서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 희망드림 은행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을 완료한 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등에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무료창업교육컨설팅 및 센터의 추천을 통하여 업체당 2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금리 연 4%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최저수준인 연 0.5%이다. 총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 향후 점차 지원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자활지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하여 무점포소매업, 노점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전통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VII. 결론

서울시는 2009년 생활시정으로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는 기존의 시혜성 지원이 아닌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활과 자립의 의지를 키워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으로, 재단에서는 창업이 저소득층 자립방법의 하나로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경제침체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존의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적 약자’를 대하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 소상공인은 서울경제의 근간으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의 고려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신용보증과 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화된 교육컨설팅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크레딧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역량의 증대 등과 더불어 재단의 고객인 소상공인 주도의 프로세스 개선(고객소싱, Customersourcing)을 통하여 진정한 서울시 소상공인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현황」, 2008.4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혁신방안 연구」, 2007.12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 2007.11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정책개발 보고서」, 2007.10
- 중소기업청, 「2007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10
- 서강대학교 시장연구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효과분석」, 2007.9
- 전인우,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서울경제, 2007.7
- 신창호·김진수·한미량,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기업 지원효과」, 서울경제, 2007.7
- 홍순영·이종욱,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5.5